

교체 투입 20초 만에 결승골...아사니, 아시아 호령

광주FC, ACLE서 선화에 1-0 승리...4승 1패 2위 지켜 이정호 감독 "연습한 대로 광주다운 축구 잘 보여줬다"

"우리의 축구를 잘 보여줬다"며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리그(ACLE) 질주를 예고했다.

광주는 2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CLE 스테이지 5차전에서 상하이 선화(중국)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뒀다. '해결사' 아사니가 후반 교체 투입과 함께 대회 7호골을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아사니의 선제골을 지킨 광주는 4승 1패를 기록, 2위 자리를 지켰다.

구단 사상 첫 ACLE 무대에서 사람들을 연달아 놀라게 하고 있는 이정호 감독은 "연습한 대로 경기장에 모든 걸 부어주었다. '해결사' 아사니가 후반 교체 투입과 함께 대회 7호골을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아사니의 선제골을 지킨 광주는 4승 1패를 기록, 2위 자리를 지켰다."

구단 사상 첫 ACLE 무대에서 사람들을 연달아 놀라게 하고 있는 이정호 감독은 "연습한 대로 경기장에 모든 걸 부어주었다. '해결사' 아사니가 후반 교체 투입과 함께 대회 7호골을 장식하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아사니의 선제골을 지킨 광주는 4승 1패를 기록, 2위 자리를 지켰다."

나와 선수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일을 할 것이다. 경기장에 나가 팬들을 위해 지금처럼 끝을 위해, 팬들이 좋아할 축구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선화전 승리 소감을 밝혔다.

또 "상하이 선화 외국인 선수들에게 틈을 보이면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수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며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미리 반응하자고 축구에 몰입하자고 항상 이야기한다. 그래서 선수들이 좀 잘 해 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수들의 집중력과 함께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이 빛났다.

전반전에 68%의 점유율을 보인 광주는 득점에 실패하면서 0-0에서 후반전을 맞았다. 그리고 이정호 감독은 후반 11분 아사니를 투입했다. 교체 멤버로 그라운드에 오른 아사니는 첫 터치만에 왼발로 선제골을 장식했다. 광주가 실점 없이 1-0으

로 경기를 끝내면서 아사니는 결승골 주인공이 됐다.

근육 부상에서 회복 중인 아사니를 최대한 잘 활용한 이 감독은 "아사니를 단연코 선발로 내세우고 싶었다. 아사니가 30분에서 35분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참고 참다가 골이 필요해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서 아사니를 넣었다"고 밝혔다.

해결사 역할을 한 아사니는 '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아사니는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골이 있어야 선수들의 자신감이 올라가고, 또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가 희생을 한 덕분에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 다들 정말 기쁜 것 같다"고 말했다.

ACLE 이번 시즌 득점왕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힌 아사니는 호날두로부터 동기를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아사니는 이날 대회 7호골을 기록하며 현재 득점 1위다.

아사니는 "최고의 선수인 호날두는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한 동기부여가 됐다"며 "이 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다. 특히 감독님이 이번 팀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선수들도 잘 따라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시즌 지겨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감독님의 가르침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또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FC의 아사니(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7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상하이 선화와의 ACLE 5차전에서 후반 12분 골을 넣은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토티넘 입단' 양민혁, 올해의 영플레이어 9위



FIFA 산하 연구소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티넘 홋스퍼 입단을 앞둔 양민혁(강원·사진)의 가능성을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연구소도 인정했다.

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소(CIES)는 성인 무대에서 꾸준히 활약해 기대를 모는 신인 선수 100명을 소개하면서 양민혁을 9위에 올렸다.

CIES는 성인 프로 무대에서 공식 경기 출전 시간이 900분 미만인 20세 미만 선수 중 가장 많은 출전 경험을 보유한 선수를 선정했다.

출전 시간과 리그의 수준, 성적에 따라 가중치를 두며 점수를 부여해 순위를 매겼고, 양민혁은 71.5점을 받아 10위권에 들었다.

만 18세 양민혁은 올해 K리그가 배출한 최고 스타다.

준프로계약 선수로 프로에 데뷔, 올 시즌 강원 이 치른 K리그 38경기에 모두 출전해 12골 6도

움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다섯 번이나 받을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과시했다.

지난 6월 강원과 정식 프로 선수 계약을 맺었고 7월에는 손흥민이 활약하는 토티넘과 계약했다.

그는 내달 15일 토티넘에 조기 합류할 예정이다.

1위는 '거함'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17세 센터백 파우 쿠바르시였다. 쿠바르시는 발밀과 패스가 좋은 데다 어린 나이에 대인 방어도 잘하는 편이라 바르셀로나에서 꾸준히 출전 기회를 받고 있다.

쿠바르시에 이어 2위 코비 마이누(맨체스터 유나이티드), 3위 훌리오 솔레르(라누스), 4위 이스테방 윌리앙(팔메이라스), 5위 세미호 클르츠소이(베식타시), 6위 클라우디오 에체베리(리버풀 레이트), 7위 잭 힌셜우드(브라이턴), 8위 토비아스 라미레스(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 등이 순위 표 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PGA 투어 vs LIV 골프 대결 상금은 '가상화폐'

세플러·매킬로이 VS 디샬보·킵카 12월 18일 격돌

다음달 스코티 세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브라이슨 디샬보,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가 맞붙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LIV 골프의 간판선수 대결 이벤트에서 상금은 가상화폐로 지급한다.

골프닷컴과 골프위크 등 골프 전문 매체는 오는 12월 1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사도 크리크 골프클럽에서 이들 4명이 맞붙는 이벤트 대회의 타이틀 스폰서로 가상화폐 거래와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 기업인 크립토타킴이 확정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회 명칭은 '크립토타킴 쇼다운'으로 결정됐다.

이 대회는 공식 대회가 아닌 유료 TV 중계용 이벤트 대회지만 사실상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 4명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4명이 PGA 투어와 LIV 골프의 간판선수

로서 PGA 투어와 LIV 골프의 자존심 대결의 성격도 가미돼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눈에 띄는 사실은 이 대회가 선수들에게 상금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긴 쪽에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크립토 가상화폐로 준다는 계획이다.

미국 주요 프로 스포츠 대회에서 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선수 4명에게 출전비는 1인당 400만달러씩 먼저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이벤트 대회인 위믹스 챔피언십은 작년부터 상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다.

지난해 우승자 이예원은 우승 당시 6억원이 채 되지 않았던 위믹스 가상화폐를 받았다가 나중에 약 8억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4-2025 컬링 슈퍼리그 30일 개막

첫선을 보이는 2024-2025 컬링 슈퍼리그가 오는 30일 개막한다.

대한컬링연맹은 "2024-2025 컬링 슈퍼리그가 3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경기도 의정부컬링장에서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믹스더블을 제외한 남녀부 4인조 경기만 개최된다. 남자부는 올 시즌 국가대표인 의성군정(스킵이

재범)을 비롯해 강원도정(스킵 박종덕), 경북체육회(스킵 김수현), 서울시청(스킵 정병진), 가톨릭관동대(스킵 김학준) 5팀이 참가한다.

여자부는 국가대표 '5G' 경기도정(스킵 김은지)을 비롯해 '팀킵' 강릉시청(스킵 김은정), 춘천시청(스킵 하승연), 전북도정(스킵 강보배), 서울시청(스킵 박유빈), 의성군정(스킵 김수현) 6

개 팀이 도전장을 내민다.

경기는 매주 토, 일, 월, 화요일 열린다.

각 팀은 서로 2번씩 맞붙는 더블 라운드로빈 방식의 정규라운드를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노린다. 플레이오프에서는 2-3위가 단판 승부를 펼치고, 승자가 1위 팀과 3전 2승제 결승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

컬링 슈퍼리그 초대 챔피언은 상금 2000만원과 부상을 받는다. 2위 팀에는 상금 400만원과 부상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조조선섬유조형회 특별전
: 엮고 물들여 쌓은 아름다움으로 위로하다

일시 : 2024-11-1(금) ~ 2024-12-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4-11-02(토) ~ 2024-11-30(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11.15(금) 오후 7시 기획공연
(청년국악 힐링 콘서트)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2024년 11월

매주 토요일 17:00

광주공연마루

2024

11.17(수) - 12.1(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